

9

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 고 의 과 정

독해력이 지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독해력은 '문제' 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칭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찾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럴 수밖에요.
수능 국어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국어영역을 다루면서 **강조하는 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영역 전반)

1. 대명사나 지칭하는 말(EX. 주체, 자신의 상황, 천상의 존재 등) 이 나오면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국어 영역 전반적으로 해당됩니다! 독서만 해당 NONO

독서/화작)

1. 핵심질문 파악 (출제자가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가?)
2. 일반화 / 구체화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3. 상관관계 요약 (상관관계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제시한다)
4. 위치파악 독해 (이 개념이 언급됐던 개념인가?)



문학)

1. 문학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해석의 틀'** 을 제시한다.
이 해석의 틀. 즉, **지문 독해의 관점**을 갖고 글을 읽어낸다.
2. 선지에서 **FACT체크**로 제시되는 **'필수개념어'**를 명확하게 정의 내린다.

문법)

1. 설명없이 바로 제시되는 **필수개념**을 숙지한다.

지문 사고과정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가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①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고전 역학 : 상태 공존 x

양자 역학 : 상태 공존 o

미시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 공존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세계를 알아야 한다!

거시세계 : 관찰 이전에 결정

미시세계 : 관찰 이전에 상태공존, 관찰 이후에 결정

#주의점#

여기서 거시=고전, 미시=양자 라고 보면 위험함.

미시세계에서는 ‘관찰 이전에 상태공존’

뿐만 아니라 ‘관찰 이후에 결정(=상태 공존x)’도 언급

이와 비슷한 의문이 뭐지?

‘이러한 연구성과’에 의한 ‘상식적인 생각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이러한 연구성과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실제로 구현됨’을 말함.

이에 따라 추론하면

‘상식적인 생각들’은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불가함’을 의미

이제 논리학에서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 가능’을 이야기 하겠다!

고전 논리 : 참 or 거짓 (상호 배타적) 이치논리
→ 상식

프리스트 : 참 or 거짓 or ‘참+거짓’ (상호 배타적 공존)

거짓말쟁이 문장은 ‘상호 배타적 공존’을 설명하기 위한!

거짓말쟁이 문장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지시적 문장’을 알아야 한다!

자기 지시적 문장 =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

자기 지시적 문장을 알았으니, 이제 거짓말쟁이 문장을 알아보자!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해야 함.

있었을까 봐 얘기해주네. 거짓말쟁이 문장은 ‘상호 배타적 공존’을 설명하기 위한! 대담 찾자!

거짓말쟁이 문장 ‘참’ 가정 → 그러면 ‘거짓’ (상호 배타적 공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진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진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진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진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진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LP: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거짓말쟁이 문장 '거짓' 가정 → 그러면 '참' (상호 배타적 공존)

So, 거짓말쟁이 문장 = 상호 배타적 공존

'이 점을 시사'가 무엇을 가리키지?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존재함을 말하는구나!
즉, 양자 역학이 '참인 동시에 거짓' (=상호 배타적 공존)의 다른 예로 봤음.

고전 논리 → 참인 동시에 거짓 X (=상호 배타적)
비고전 논리 (LP) → 그것[=참인 동시에 거짓]도 다름 (=상호 배타적 공존)

[비고전 논리에서 규칙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하고

[전진 긍정 규칙을 이야기]하므로

비고전 논리: 전진 긍정 규칙 X

고전 논리: 전진 긍정 규칙 O

전진 긍정 규칙이 뭐여?

: 조건문과 전진 '참' → 후진 반드시 '참'

뭐이리 복잡해.

강 한마디로 비고전에서는 전진 긍정 규칙 성립 안 한다는 거잖아.

경우에 따른 결과 정도 밀줄치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대응시켜야지~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발문(Clue) 문맥을 고려, ㉠의 의미

선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문맥을 통해 ㉠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선택지 구!

Sol1) 문맥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

양자 역학: 두 상태 공존, 관찰이 상태 결정

이것에 회의적인 태도는 3번!

Sol2) 설의법의 개념 적용

설의법은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바꿔 써보면,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 달이 존재한다'

라고 재해석이 된다.

4번의 의미는 '관찰이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

4번 고른 분들, 문맥을 파악하셔야죠!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 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으니

<보기>에서 지문과 대응시키는 단서를 찾아서 지문 어디에 대응되는지 판단!

발문(Clue)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

→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비교구나!

각각의 특징이 뭐였지?

상호배타 공존 vs 상호배타 공존x

Clue1)

N자리 이진수 나타내려면 n비트 필요/ 2^n 개 존재

Clue2)

일반컴: 1개 비트 → 0 or 1 하나만

두 자리 이진수, 2비트, 2^2 개 존재

→ 2^2 번 연산

Clue3)

양자컴: 한 비트에서 0,1 동시처리

두 자리 이진수, 2비트, 2^2 개 존재

→ 1번 연산

공통점 & 차이점 발견!

① 상태의 공존 → 비트 수 늘려?

비트 수는 '몇' 자리 이진수인가에 따름 Clue1)

② 3비트, 세 자리 이진수 일 때,

일반컴 vs 양자컴 처리 속도 비교

일반컴: 2^3 만큼 연산 Clue2)

양자컴: 자리 수 맞게 비트수 대응되니까 1번에 처리! Clue3)

→ 양컴이 8배 빠르다!

③ 한 자리 이진수, 1비트일 때,

일반컴 vs 양자컴 처리 속도 비교

일반컴: 2^1 번 Clue2)

양자컴: 자리 수 맞게 비트수 대응 → 정보처리 1번 Clue3)

④ 양자컴, 4비트, 네 자리 이진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는 2^4 개! Clue3)

⑤ 3비트, 양자컴, 세 자리 이진수

vs Clue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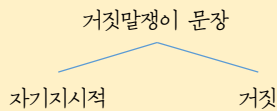
6비트, 양자컴, 여섯 자리 이진수

속도 비교

양자컴에서는 비트 당 0,1을 동시에 처리 가능하므로 비트수와 자리수만 같으면 한번에 처리가 된다!

29.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 ⑤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발문 **Clue** ‘자기 지시적 문장’을 먼저 파악하고 선지로 들어가랏!

자기 지시적 문장 =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

- ① 자기 지시적 문장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음
- ② 판단할 부분
Q1. 자기 지시적 문장인가?
Q2. ‘거짓’이 아닌가?
A1 ‘이 문장’이라고 해서 자기 지시적임
A2 자기 지시적 문장이 맞기에 ‘거짓’이 아님.
(ㄹㅇ 말장난..)

#Q ‘참인 동시에 거짓’은 아닌가요?

A ‘거짓말쟁이 문장’ 나온 다음에 ‘자기 지시적 문장’이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나 보군요. ‘거짓말쟁이 문장’ 이해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자기 지시적 문장’을 이해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 지시적 문장’이 ‘거짓말쟁이 문장’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ㅇㅋ?

- ③ 이치 논리가 뭐꼬?
이치 논리와 자기 지시적 문장의 관련성?

이치 논리 = 고전 논리 (참, 거짓 판단)
자기 지시적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 됩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죠.

- ④ 고전 논리와 자기 지시적 문장의 관련성을 묻는 선지(3번동일)
고전 논리에서 진리치 = 참 or 거짓

- ⑤ 비고전 논리 (=프리스트 입장)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부여하는가?
자기 지시적 문장 중에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 즉, 거짓말쟁이 문장만 해당!

30.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발문 **Clue** ㉠이 뭔지 먼저 생각하고 선지로 ㄱㄱ!

전건 긍정 규칙과 관련 지어 생각하기
㉠이 조건문 p가 전건 q가 후건!
이거 알면 다 푼 거나 다름 없다.

전건 긍정 규칙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

1. 고전 논리 2. Lp(프리스트)

<고전논리 관점>

조건문, 전건 ‘참’ → 후건 ‘참’ (전건 긍정 규칙)

<lp관점>

조건문, 전건 ‘참’ or ‘참 동시 거짓’

→ 후건 ‘참’ or ‘참 동시 거짓’ 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

전건 ‘참 동시 거짓’, 후건 ‘거짓’

→ 조건문, 전건 ‘참 동시 거짓’, 후건 ‘거짓’ 이 된다.

- ④ <고전 논리> 대응

재해석하면

조건문, 전건 ‘거짓’이 아님(=참) → 후건 ‘거짓’?

*고전 논리는 참, 거짓만 있으므로 ‘거짓이 아니면 참’

- ⑤ <고전 논리> 대응

재해석하면

조건문과 전건 ‘참’ and 후건 ‘거짓’ 불가능?

전건 긍정 규칙이 적용되므로 불가능!

- ① <lp관점> 대응
재해석하면
Lp: 전건이 ‘참 동시 거짓’, 후건 ‘거짓’ → 조건문 ‘거짓’?

- ② <Lp관점> 대응
재해석하면
Lp: 조건문, 전건 ‘참 동시 거짓’ → 후건 ‘참 동시 거짓’?

- ③ <lp관점> 대응
재해석하면
조건문, 전건 ‘참’ or ‘참 동시 거짓’ → 후건 ‘참’ or ‘참 동시 거짓’?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ㄱ)~(ㄷ)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ㄷ)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ㄹ)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ㄱ)과 (ㄴ)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ㄷ)과 (ㄹ)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ㄴ)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⑤ B는 A와 달리 (ㄹ)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으니 <보기>에서 지문과 대응시키는 단서를 찾아서 지문 어디에 대응되는지 판단!

<보기> clue잡기

Clue1)

A: 고전 논리 (두 개 상태 공존 x)

Clue2)

B: lp + 양자 역학에 대한 프리스트 입장 (=비고전 논리) (두 개 상태 공존 o)

Clue3) (ㄱ), (ㄴ) : 전자, 관찰하기 이전

→ '미시 세계' 와 대응, 상태 공존 o

Clue4) (ㄷ), (ㄹ) : 반지름 5cm 팽이

→ '거시 세계' 와 대응, 상태 공존 x

#주의점!!

비고전 논리는 '항상 두 상태가 공존한다'

즉, 비고전 논리는 거시 세계를 부정함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1문단 밑에서 2번째 줄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

혹은

2문단 밑에서 6번째 줄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

에서 알 수 있듯이

비고전 논리는 거시 세계(상태 공존x)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고전 논리 : 거시든 미시든 상태 공존 x

비고전 논리 : 거시는 상태 공존 x, 미시는 상태 공존 o

① 고전논리는 참 or 거짓만 있다고 봤다. Clue1)

② 비고전논리 Clue2)

Clue3) (ㄱ) (=미시세계) → '참' 동시 '거짓' (= 두 상태 공존o)

Clue4) (ㄷ) (=거시세계) → '참' or '거짓' (= 두 상태 공존x)

③ 고전과 비고전 Clue1,2)

(ㄷ) (ㄹ) (=거시세계) Clue4)

둘 다 거시세계는 '두 상태 공존 x' 이라고 봄

④ 고전 대응o 비고전 대응x Clue1,2)

(ㄴ) (=미시세계) '참' 동시 '거짓' 될 수 없다 (= 두 상태 공존 x)

고전은 미시세계 '두 상태 공존 x' 라고 봤음

비고전은 미시세계 '두 상태 공존 o' 라고 봤음 Clue3)

⑤ 비고전 대응o 고전 대응x Clue1,2)

(ㄹ) (=거시세계) '참' 이 아니면 → '참' 동시 '거짓' Clue4)

비고전이든 고전이든 거시세계에서는 '상태 공존 x' 라고 봤다.

38~42 의 사고과정

지문 사고과정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 뒤트캬는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기슭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트캬는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트캬는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익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호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뒤트캬 : 집합 의례, 공동체 결속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이라는 사례 제시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네. 구체화에서 집합 의례와 공동체 결속에 해당하는 내용 찾자!

집합 의례 → 성 OR 속 판단

성스러움 깨달음 → 공동체 결속 재생

성스러움 → 생계 활동에 적용

1문단에서의 '성스러움 → 공동체 결속 재생'에서 더 나아가 '성스러움 → 공동체 결속 재생 → 새 도덕 공동체'까지! 예시를 드네? 앞선 내용의 구체화니까 새 도덕 공동체 만든다는 내용이 겹치. 해당하는 내용 찾자!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 →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새 도덕 공동체)

새로운 학자! 어떤 관점일까? 공통점 차이점 찾기!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구체화하니까' 뒤트캬 이론의 심화!

성스러움 = 가치

위기 시기는 그 도덕적 의미(=가치) 흔들리는 시기

"가치는 위기 시기에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부터 앞선 내용의 구체화!

일상에서 자기 이해관계 =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

위기 시기에는 관심이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 = 가치의 일반화

가치의 효과 : 긴장 압박 해소

→ 사회 통합 회복

생리 작용과 유사!

또 새로운 학자! 어떤 관점일까? 공통점 차이점 찾기!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라고 했으니

파슨스, 스멜서 이론 심화!

아! 그러면 '뒤트캬 → 파, 스 → 알렉' 이렇게 심화되는 거구나!

차이점은 생물학적 은유(=생리 작용)에 동의X

'사회적 공연론' 제시. 그러면 사회적 공연론이 뭔지 알면 되겠네.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 뭔걸? 구체화 필요하겠네

사회적 공연 = 자율성의 융합 → 우발성 극대화

아~ 우발성이 크니까 결과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하는거고. (예측이 안되니까)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을 제시해주는 문단이군.

빠르게 표시해두고 문제 풀 때 위치파악 해야겠다.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 미장센(mise en scène):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

= 대본, 배우, 관객, 미장센, 상징적 생산 수단, 분화된 사회적 권력

'사회적 공연 = 자율성의 융합' 이니까

자율성 없으면 사회적 공연도 없지!

다른 친구들은 뭘 골랐을까?

① 5% ② 4% ③ 76% ④ 8% ⑤ 7%
출처: 이투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39.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40.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 ②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 ④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 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발문(Blue) 논지 전개 방식

선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글 전반적인 구조를 살핀다!

Sol) 중심 화제(=집합 의례)에 대한 이론이 심화되는 방식으로 구성!
'뒤르케임→파슨스 스멜서 → 알렉산더'

다른 친구들은 뭘 골랐을까?

① 4% ② 5% ③ 7% ④ 76% ⑤ 9%
출처: 이투스

발문(Blue) 집합 의례, 뒤르케임 관점!!

선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뒤르케임 관점을 파악하고 들어간다!

뒤르케임 관점 1~2문단 대응

- A) 집합 의례 → 성 OR 속 판단
- B) 성스러운 깨달음 → 공동체 결속 재생
- C) 성스러운 → 생계 활동에 적용
- D) 성스러운 → 공동체 결속 재생 → 새 도덕 공동체'

- ① 집합 의례 → 기존 도덕 공동체 재생? B)
- ② 집합 의례 → 생계 활동에 '성' 부여? C)
- ③ 집합 의례 → 새로운 도덕 공동체? D)
- ④ 집합 의례 → 구체적인 이해관계 중심?
- ⑤ 집합 의례 → 성 OR 속 규정? A)

다른 친구들은 뭘 골랐을까?

① 61% ② 14% ③ 5% ④ 3% ⑤ 16%
출처: 이투스

발문(Blue)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

선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위기 시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때 뭘 일이 벌어지는지? 판단하고 들어가자!

SOL) 위기 시기 = 가치가 흔들리는 시기
→ 가치의 일반화!
여기서 '가치'란 '성스러운'

사람들의 관심이 '일상 (=속)'에서
'위기 시기'를 통해 '보편적인 가치 (=성스러운)'으로 상승

2번: 목표와 규범 차원 = 자기 이해관계 (=속)
5번: 평상시 추구 = 속
삶의 도덕적 의미 = 성
선지 자체가 대응되지 않음.

41. 밑줄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 ②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 ③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④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발문 Clue) '㉠, ㉡ 관점' 파악하고 선지로 들어가자!

㉠ 파슨스, 스멜서
: 1) 성 = 가치 2) 위기시기에 성 보편화 3) 생리작용

㉡ 알렉산더
: 1) 생리작용X (결과 모름) 2) 사회적 공연 O (자율성)

- ① 결과 결정되어 있지 않은가?
㉠ X ㉡ O
- ② 가치 일반화?
㉠ O
- ③ 경험적 탐구 필요?
㉠ O
- ④ 생리 과정 유사?
㉠ O ㉡ X
- ⑤ 분류 체계 X?
㉠ X

42. 밑줄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조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조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발문 Clue) '사회적 공연론'을 <보기>에 적용하는 거니까 사회적 공연론 요소들 대응 시키겠네.

요소들 파악하고 <보기> 대응시키기!

대본 : 다양, 구체화
배우 : 실행 → 반대파, 찬성파
관객 : 내부적 분화 →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
미장센 : 시공간 동선 → A시
상징적 생산 수단 : 관객 전파 → 중앙 언론
사회적 권력 : 통제 X, 분화 → 경찰

- ① 미장센 : 시공간 동선이므로 A시 한정 O
#함정#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 이 말은 못했다는 의미
- ② '가치의 일반화'가 의미하는 바?
어떤 가치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
전국적으로 알리려 했지만 결국 실패함 → 가치의 일반화 실패!
- ③ 관객 → 출신 지역, 나이로 분화? O
- ④ 상징적 생산 수단(=중앙 언론) → 보도 안 함
사회적 권력(=경찰) → 허가 X
- ⑤ 배우들(=반대파, 찬성파) → 지역 경제 발전 동의?
→ 서로 다른 대본?
조각장 설치하면 지역 경제 발전. 그러므로 찬성파는 지역 경제 발전 동의. 반대파는 <보기>에 직접 나와있고, 찬/반 이니까 서로 다른 대본 O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친구들은 뭘 골랐을까?

① 3% ② 28% ③ 8% ④ 47% ⑤ 14%

출처: 이투스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춘향: a)천상의 존재 유무?
 b)억울함 전하는 상황 유무?
 c)자신의 감정 드러냄?

a,b,c)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지 Clue 쪼개기!

- ① 이별의 상황 → 도련님 입장에서 불가피?
 ② 춘향: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 우려?
 ③ 춘향: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있나? 있다면 자연물 의탁했나?
 ④ 춘향:
 a)고사 활용했나?
 했다면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가?
 여기서 더 쪼개서..!
 b)자신의 상황이란?
 c)역사적 사건은?

고사 = 옛날 일

- a)고사 활용 = 옛날 일 있나? → 진시황 얘기 (O)
 b)자신의 상황 = 이별하는 상황
 c)역사적 사건 = 진시황 얘기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음]

B,c) 통해 선지를 재해석하면..

→ [이별하는 상황이 진시황 이야기와 관련 있음]

진시황 이야기 때문에 이별한 것이 아니므로 X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랴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나?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는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 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 가서 순사포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포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태어 툇툇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역마차호마다 걸식

하며 다니다가, 돈 한 톨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 푸경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둥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활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푸경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鐸)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교!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넋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제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켜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소냐? 박당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둘러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작자 미상, 「춘향전」-

*박당사: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는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겠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겠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겠군.
-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겠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하라고 했으니 <보기>에서 [A] [B]를 해석할 관점을 찾아야 한다!

<보기> 해석의 틀

(가) 세책업자
과장, 재치 → 흥미
특정분량 늘려 → 이윤

(나) 잡가 담당층
상황 집약 → 단시간 전달
감정 반복 → 공감
화자 역할 바뀌기도

이 내용과 36번 <보기>내용을 중점으로 글을 읽는다.

선지 Clue 쪼개기!

- [A] 생는 나을 일 → 과장된 표현? → 흥미 높임? (보기) 대응 0
지문 대응 0
- [A] 거듭하여 묻는 형식? → 분량 늘리기? (보기) 대응 0
지문 대응 0
- [B] 첫 행에 작품의 상황 제시? → 청중 빠르게 끌어들임? (보기) 대응 0
지문 대응 0
- [B] 구절 반복? → 인물의 감정 강조? → 공감? (보기) 대응 0
지문 대응 0
- [B]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 바꿈? (보기) 대응 0
→ 연속 되지 않은 장면? 지문 대응 0
지문 대응 X

시에서 화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화자와 아닌 화자로 구분.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나, 우리'란 표현이 있다.

(나)의 2번째 줄까지는 '해설자'
3번째 줄부터는 '춘향(나)'

[B]는 처음부터 끝까지 춘향이 이별에 대한 한탄을 보여준다. 연속 되지 않은 장면이 맞다면, 이별에 대한 한탄이 아닌 부분이 나타나야 한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랴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나?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는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냐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별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 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잠을 데 없으시면 ㉠ 삼단갈이 좋은 머리를

[B]

휘휘칭칭 감아취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코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글장이수능국어 강의안내

인터넷강의

오르비클래스에서 진행중!

9/6 오픈! 낮은 가격이지만 고퀄리티 문제와 강의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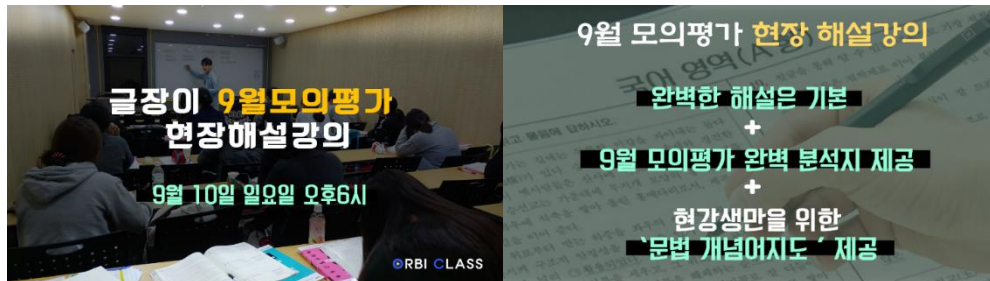
1강은 첫 인강이다 보니 조조금 어색어색

현장강의

*9평해설강의 (부제: 평가원 사고과정의 인지)

9/10 일요일 오후 6시 강남역 근처 강의실에서 진행!

예약 접수중! (금요일 예약까지만 문법 개념어지도 제공)



*글장이 FINAL

9/17 일요일 오후 6시 강남역 근처 강의실에서 진행!

예약 접수중!

